

규제완화가 경쟁력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상무 유병규

국내 기업의 활동 여건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2008 기업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환경은 178개국 중 30위로 2006년과 2007년의 23위에서 7단계나 하락하였다.

근본 원인은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공장 설비 인허가 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이상이라고 한다.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채용·해고의 유연성 등 고용 분야는 131위로 바닥권에 머물렀다.

정부 기관들의 발표 자료에 의거하더라도 기업 규제는 그동안 줄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7년 2월 현재까지 955개의 예전 규제가 줄었으나 같은 기간에 1244개의 새로운 규제가 또 다시 늘어나 총 규제 수는 7794 건에서 8083건으로 289건이나 많아졌다.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과도한 규제는 무엇보다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된다. 안 되는 것을 되도록 만들기 위한 갖은 편법을 동원하도록 유도하는 까닭이다. 이는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여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경제 의욕과 창의성을 저하시켜 경제 활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정부 규제는 제약이 없는 시장 개방과 무한 경쟁 원리를 바탕으로 확산되는 세계화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결국 규제가 많을수록 경제 성장력은 그만큼 약화된다. OECD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 규제 비용은 약 48조6000억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7% 그리고 총국세의 35.1%가 규제로 사라지는 셈이다.

21세기는 시스템 경쟁, 다시 말해 제도 경쟁의 시대다. 기술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세계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살리고 부단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의 구

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규제의 최소화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기도 하다. 물론 환경 오염과 같은 외부 불경제와 같은 시장 실패를 완화하여 시장 경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규제 개혁의 방향은 경제 효율성을 한층 높이는 ‘생산적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목표지향적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 목표는 규제 개수를 몇 개 줄이겠다는 형식적이고 양적인 것이 아니다. 기업 투자를 몇 % 더 늘리겠다는 것과 같이 개혁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목표를 뜻한다.

다음으로 한 종류의 규제가 여러 부처와 법령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 대기업 관련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수도권 입지 규제, 인력·노사 관계 규제, 물류 등 서비스산업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규제들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의 디지털화, 시장의 전면 개방, 금융 산업의 급속한 성장 추세 등에 역행하는 금산 분리나 진입 규제 장벽과 같은 정책 규제들을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규제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를 자동 해제하는 규제 일몰제를 확대하고 이를 준수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국내 규제 체계를 지금처럼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총괄적으로 규제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지 사항만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네가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규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추진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OECD는 규제 개혁 단계를 양적 규제 완화, 규제의 품질 개선, 규제의 품질 관리의 3단계로 구분한다. 이제 한국도 단순히 규제의 양을 줄이는 단계에서 앞으로는 기업들이 규제 혁신을 피부로 느끼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품질 개선과 품질 관리 단계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